

LG화학, 석유화학 수익창출 극대화

김반석 회장, 글로벌 화학기업 도약 ... 핵심사업 및 글로벌 조직 강화

김반석 LG화학 부회장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반석 부회장은 1월4일 여의도 본사에 열린 시무식에서 “2010년에는 환율 하락, 중동과 중국의 신증설 물량 확대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고자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핵심사업의 1등 추구 ▲고객가치 혁신 ▲글로벌 조직역량 강화 등 세 가지를 경영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핵심사업인 석유화학은 수익창출 역량을 극대화하고, 정보전자소재와 전지사업은 글로벌 시장 지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대형 전지사업과 LCD(Liquid Crystal Display)용 유리기관 등 미래 신규사업에 연구개발(R&D)을 비롯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미래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고 1등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생산현장의 공정 기술력과 R&D 역량을 결합해 경쟁기업보다 낮은 비용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반석 부회장은 “전 사원이 스피드 경영을 체화해 탁월한 성과 창출의 기반이 되는 글로벌 조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04>